

실험결과보고서

10128 정예운

식물 종 탐색	
실험 일자	2026. 05. 27
준비물	스마트폰
실험과정	1. 구글 렌즈를 통해 식물을 사진찍은 뒤, 식물의 종을 알아낸다. 2. 인터넷을 통해 식물의 학명, 특징을 조사한다
관찰내용	<p>괭이밥 들이나 밭에서 흔히 나는 다년생 초본이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키는 10~30cm가량 되고, 잎은 마주나고 3개의 작은 잎이 옆으로 펼쳐져 있고 길이와 폭이 1~2.5cm가량 되며 가장자리와 뒷면에 털이 약간 있고 햇볕이 부족할 때는 오므라든다. 관상용으로 쓰이며 잎은 식용으로 사용된다.</p> <p>나비바늘꽃 줄기가 가늘고 길게 뻗으며, 꽃이 줄기 끝에 산형으로 피어 바람에 흔들리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낸다. 5월 ~ 12월까지 개화가 길고, 한여름에도 꽃이 계속 피는 편이다. 네 장의 꽃잎이 십자 모양으로 펼쳐지고, 중심의 수술, 암술이 도드라져 섬세한 인상을 준다.</p>
추가탐구	<p>학교에 이렇게나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새로웠다. 활동을 하면서 괭이밥을 보고 처음에 토끼풀인줄 알았으나 검색해보니 토끼풀이 아니라 괭이밥이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서 괭이밥과 토끼풀의 차이를 조사해보았다. 괭이밥과 다르게 토끼풀은 콩과이며 괭이밥은 하트모양에 가까운 3출엽이고 토끼풀은 둥글게 보이는 3출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p> <p>또한 괭이밥은 식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흥미로워 조사해보니 주로 시큼한 맛을 낸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유기산이 들어있는 옥살산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p>